

9-27-2026 주일 설교 메시지
금주의 묵상: 시편 91:1-16
본문 말씀: 마태복음 24:36-51
말씀 제목: 마지막 때 주의
종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인 목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너희 모든 들짐승들아, 삼림
가운데 있는 너희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어 치우라. 그의
파수꾼들은 눈 멀었고, 그들은
모두 무지 하며, 그들은 모두 말
못하는 개들이니 그들이 짖지를
못하며 잠자고 눕고 졸기를
좋아하느니라. 정녕 그들은
만족할 줄 모르는, 깨닫지 못하는
목자들이라. 그들 모두가 그들
자신의 길만을 보나니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자기를 이익만
도모하고, 말하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니 우리가
독주를 진탕 마시자. 내일도 오늘
같은 것이요, 더 많이
풍요하리로다.’ 하느니라.”(사
56:9-12)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오실 때
자신의 종들에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시간에 관해서는
아무도 모르나니, 심지어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나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나 노아의 날들과 같이
인자의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의 날들에 그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기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하다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다 쓸어 버릴 때까지
그들이 알지 못하였던 것같이,
인자의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두 여인이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떤
시간에 너희 주께서 오실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이것을 알라. 만일 그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것인지 알았더라면 그가 깨어

있어 자기 집을 뚫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시간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라.”(마
24:36-44)

또한 주님께서는 신실한
종과 악한 종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의 주인이 자기 집을
다스릴 자로 세워, 정한 시기에
그들에게 양식을 나눠 주게 할
신실하고 현명한 종이 누구겠느냐?
그의 주인이 와서 종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리니, 그 종은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주인이 그를
그의 모든 재산을 다스리는 자로
세울 것이라. 그러나 악한 종이
속으로 말하기를 ‘내 주인이
오시는 것이 늦어지리라.’하고,
자기 동료 종들을 때리기
시작하고, 주정뱅이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면, 종이 예기치
아니한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오리니,
그러면 주인이 그를 갈라내어서
위선자들과 함께 그의 몫을

지우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마 24:45-51)

그렇습니다!

주의 종들은 그가 섬기는
주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시는 때와 시기에 대하여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자신에게
맡겨주신 양들에게 항상
증거하고 그들이 영적으로
깨어있도록 하여 그들이 그 날이
오기 전에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악한 종들은 신실한
종들이 때를 따라 영적으로 때에
따른 양식을 나눠주는 일을 보고
그들을 이단으로 매도하며
때리고 박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악한 종들이
받게 될 심판에 대하여 옛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그리고
사두개인 같은 위선자들이 가계
될 지옥에서 울며 이를 갈고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